

“야곱의 일생”

히브리서 11:21

오늘은 히브리서 11 장, 믿음의 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야곱이 어떻게 했을 때 인생을 실패했고, 또 어떻게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먼저 야곱의 인생 중에 어떤 때에 실패했는지를 알아봅시다.

야곱은 교활한 방법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 받을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팔죽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았고, 나이 들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며 축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아 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려 20 년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왜 이런 신세가 되어 버린 것일까요?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다면 이렇게 도망자가 되는 신세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로 선불리 행동하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이후로 무려 25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비록 자신과 아내 사라의 나이가 정상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를 훌쩍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고, 이런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실패해 버린 것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형 에서는 하나님께 무관심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서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하나님께 직접 말을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혼도 믿음이 없는 이방여인과 하게 됩니다. 또한 에서는 예배나 기도 등 경건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사냥을 해서 잡아온 짐승을 요리해 먹는 일을 즐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록, 예배에 대한 기록, 천사와 씨름했던 기록 등 경건의 삶을 추구했던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27 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용한’ 이란 말은 ‘경건’을 뜻합니다. 즉, 야곱은 경건의 삶을 따르고자 노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의 삶을 갈망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야곱은 정말 중요한 가치관(우선순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과 에서는 가치관이 서로 달랐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5 장에서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 배가 고플 때, 팔죽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에서에게 팔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 에서가 경솔히 대한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 정도로 큰 모험을 합니다. 장자권에는 아래의 복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 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땅을 이어 받을 자
- ② 부친의 축복을 통해 후계자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
- ③ 미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

하지만, 에서는 지금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선택했고, 야곱은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장자권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셋째, 야곱은 자신의 운명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자의 운명을 장자로 바꾸었습니다. 비록 태어난 순서를 실제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은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펼쳐지는 현실과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좋은 것을 쉽사리 포기해 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하늘의 복을 적극적으로 쟁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세우거나 점잖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매달려야 합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고, 찾는자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야곱은 긍정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창세기 30 장에는 야곱의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흥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얼룩이 있고 양들은 자기의 소유로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흥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나뭇가지 꺾질을 벗겨 얼룩덜룩하게 만든 뒤에, 그것을 짐승들이 물을 먹고 새끼 배는 곳에 세워 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얼룩이 있는 새끼들이 많이 나오게 되자, 야곱은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야곱은 마음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섯째, 야곱은 기도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유와 가족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고, 자신은 압복 나루터에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창 32:24)

야곱은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이라고 부르라고 명하시며,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자' 라고 하며, 다른 말로 '약탈자', '사기꾼'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라는 복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창 32:28-29)

야곱은 기도의 끈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있고, 안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안하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야곱이 위대한 인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여러 단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야곱은 분명 단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보다 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속에서, 야곱의 장점들 가운데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으면..' 하는 모습은 어떤 부분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야곱은 압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 매달리며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미 응답된 것도 좋고, 여전히 간구중인 것도 좋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